

건강 칼럼

손가락 절단 사고, 수지접합수술 전 얼음 보관은 절대 금물

손가락 절단 사고를 겪는 안타까운 환자 사례가 많다. 특히 분주한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절단 사고를 경험하는 근로자 사례가 더러 존재한다.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현장 뿐 아니라 가사 노동 또는 야외 레저 활동 도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아찔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손가락 절단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 특성 상 냉정을 잃어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올바른 응급처치를 시행할 경우 수지접합수술로 손가락을 봉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손가락 절단 사고 이후 실은에서 6시간 정도 경과하면 절단 부위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한다. 또 수지접합수술을 진행해도 신경이 제대로 회복



주 해 군
조은손병원 병원장

복되지 않는 등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하기 어렵다.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잘린 부위에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지혈을 해야 한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수건 또는 압박붕대를 이용해 절단 부위를 감싸 지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절단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들어 올려 출혈이 멈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린 손가락 조직은 수거하여 생리식염수 등을 활용해 가볍게 세척한다. 이후 소독된 거즈, 깨끗한 천

에 조직을 감싼 후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다.

상기해야 할 점은 잘린 손가락 부위를 보관할 때 얼음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절단된 손가락 부위를 얼음에 담가 놓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만약 잘린 손가락 조직이 얼음에 직접 닿으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괴사가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얼음주머니를 만들어 손가락 부위를 별도로 밀봉한 다음 병장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 이후 응급 처치를 올바르게 시행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면 수지접합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진행한다. 수지접합수술은 25배 이상 확대가 가능한 미세현미경을 이용하여 손가락 혈관 및 인대, 근육 등을 봉합, 이식하는 원리다.

수지접합수술은 지름이 1mm 이하의 혈관을 있는 과정 특성 상 난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손가락 조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풍부한 임상경험과 고도의 집중력, 숙련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해당 의료가관이 다학제적 접근으로 치료하는지, 진료과목 별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수지접합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감각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및 괴사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수술 후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고문

도로 위 암살자 '블랙 아이스' 대처법

며칠 전 관내 도로 중 상습 결빙 구간 도로에서 블랙 아يس가 여러 군데 발생했지만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블랙 아يس란 '도로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가운이 갑작스레 내려갈 경우 한 번 녹았던 눈 또는 비가 다시 얼어서 발생한다.

블랙 아이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스팔트 표면의 틈 사이로 눈과 습기가 공기 중의 매연, 먼지와 뒤엉켜 스며든 뒤 겹겹이 얼어붙어 검은색을 띠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특히, 도로나 터

널 직후, 그늘진 도로, 산모퉁이 음지, 커브길 등 그늘지고 표면 온도가 낮은 곳에 블랙 아이스가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블랙 아이스 사고는 눈길 사고보다 사망률이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지난 5년간 겨울철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7236건 중 눈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7명이며, 블랙 아이스 사망자고는 706명으로 눈길 사망자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블랙 아이스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로 위 방관길에 의한 차량 제어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



손 유 미
전북경찰서 마이파출소

지고 연쇄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블랙 아이스 도로는 마찰계수가 0.05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비해 14배, 눈이 쌓인 길보다 6배 이상 미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블랙 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갑작 주행과 반발하는 이점 시간이나 장소에서는 더 충분히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미끄러짐이나 스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타이어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적정 공기량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에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한다. 반대 방향으로 틀면 수막이 제거되지 못하여 제동력이 더 떨어져 중심을 잃고 도는 스핀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섯째, 운전경력과 무관하므로 절대 과신하지 말고 안전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설
백세시대 '손주 사랑, 손주 자랑'

시니어 주간신문 백세시대가 '내 사랑 손주, 내 자랑 손주' 사진과 수기를 공모해 크게 관심을 모았다. 백세시대는 손주들과 함께 했던 사진, 좋은 추억이 담긴 이야기, 자랑하고픈 사연을 공모했다.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00여 편이 응모했다. 시상은 최근 부문별 1등상 1명 30만원, 부문별 2등상 2명 20만원, 부문별 3등상 3명 5만원 상당 상품이 수여됐다.

전주시지회 수기 부문 2등은 손자 탄생의 순간을 회상하며 당부의 글을 전한 장병선 어르신님의 작품이 차지했다. 장 어르신은 아들 내외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손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중학생이 된 현재까지 성장 과정을 쫓아 지켜보았다.

그는 손자가 잠언으로 삼고 따를 각종 당부를 글로 풀어냈다. 그는 "손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업으로 삼아 이 사회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었다"고 한다.

사진 부문 3등에 이름을 올린 김제시지회 송현주 경로부장은 아직 초등학교에도 가지 않은 어린 나이지만 등산에 눈을 뜬 손자와 둘레길에서 한 컷을 찍었다.

어르신들은 모두 손주만 생각하면 마음이 환해지고 근심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한다. 꼬물꼬물하던 녀석, 무엇을 해도 귀여운 자신의 분신들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이제 막 태어난 손주부터, 학교에서 직장까지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연락해오는 손주들이다. 장성해 짝을 찾아가정을 꾸린 손주, 그리고 증손주를 안고 찾아오는 손주들도 있다.

모두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내리사랑은 끝이 없다. 손주들은 삶의 활력소이자 일동력이다. 손주 사랑과 손주 자랑이 넘치는 이유다.

전주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선정

전주 한바탕국민체육센터가 최우수 공공 체육시설로 선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전주시실관리공단에 따르면 전주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우수 공공 체육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우수 공공 체육시설 선정 사업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중 경영관리와 운영 활성화, 시설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포상한다. 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다.

최우수 시설은 수도권과 충청·제주권, 전라권, 강원·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 부문을 선정한다.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경영관리와 운영 활성화, 시설 관리 등 3개 부문 10개 지표에 대한 3단계

심사를 거친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주 한바탕국민체육센터가 전라권 최우수 시설로 뽑힌 것이다.

이곳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면2377㎡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2019년 11월 1일 문을 열었다. 센터에는 헬스장과 에어로빅실, 당구장, 탁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이다.

전주시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사)전주공공스포츠클럽이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이에 앞서 2014년에도 공단이 운영하는 화산체육관이 최우수 체육시설로 선정된 바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시설들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한바탕국민체육센터가 지역 생활 체육 저변 확대에 적극 기여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